

韓半島에서의 小形仿製鏡 生産

—製作技術으로 본 초기 야요이 시대 小形仿製鏡의 製作地—

미나미 겐타로(구마모토대학교)

역: 무라마츠 요스케

1. 머리말

야요이시대에는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대륙·한반도에서 동경이 전해지며 중기 중순에는 한반도로부터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이, 중기 후반부터 후기에 거쳐서는 중국으로부터 한경(전한경·후한경)이 유입되었다. 이와 함께 야요이시대 후기 초두부터는 한경을 모방한 야요이시대 소형방제경(小形仿製鏡)(이하, 소형방제경이라고 한다)이 제작되게 된다. 한경은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부터 후기에서의 부장품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지적되고 있고, 소형방제경도 北部九州와 타지역을 연결하는 것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 그러한 성격의 소형방제경은 어디서 제작된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거푸집이나 제품의 분포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거푸집의 출토는 매우 적고, 제품의 분포만으로는 그 제작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초기 단계에 제작된 소형방제경(이하 초기 소형방제경이라고 한다)의 제작지에 대해서 한반도 동남부와 北部九州라고 하는 두 개의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소형방제경의 제작지가 한반도 동남부인가 북부 큐슈인가에 의해 생산체제와 유통 형태, 나아가서는 그 배후에 존재하는 정치적인 관계의 평가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소형방제경의 제작 기술에 시점을 두고, 특히 제품에 남은 주조 흔적에 착안한다.

여기서 본론의 검토 대상인 초기 소형방제경을 명확하게 해 두려고 한다. 초기소형방제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연부가 협연이며, 문양 구성이 원경(原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한의 이체자명대경(異體字銘帶鏡)에 가까운 일군이다(그림 1). 高倉洋彰의 분류⁽¹⁾의 内行花文日光鏡系·重圈文日光鏡系 I 型 a 類·I 型 b 類, 田尻義了의 분류⁽²⁾의 内行花文系 제 1 型·重圈文系 제 1 型, 필자분류⁽³⁾의 内行花文系·重圈文系 I 型이다⁽⁴⁾. 현재에는 한반도에서 19면, 일본 열도에서 19면이 확인되고 있다(표 1). 근년, 福岡県久留米市寺徳遺蹟에 있어 重圈文系 I 型の 거푸집이 출토되고⁽⁵⁾, 北部九州에서 초기 소형방제경이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푸집의 출토만으로 그 모든 제작지를 北部九州로 하는 것은 어렵다. 한반도에서는 초기 소형방제경의 거푸집은 현재까지 출토되고 있지 않지만, 제품은 한반도 동남부에 집중하고 있다.

表1 初期小形?製鏡一?

No	名称	所在地	型式	面径 (cm)	中子設置方法	湯量不足	備考	文献
1	漁隠洞遺跡 (A-1)	慶尚北道慶州市	重 I 型 B 類	5.7	A	○	No. 1 ~ 4・12・24 と同範鏡	1
2	漁隠洞遺跡 (A-2)		重 I 型 B 類	5.7	A	○		1
3	漁隠洞遺跡 (A-3)		重 I 型 B 類	5.7	A	○		1
4	漁隠洞遺跡 (A-4)		重 I 型 B 類	5.7	A	○		1
5	漁隠洞遺跡 (B-1)		重 I 型 B 類	5.5	A	○	No. 5 ~ 7・33 と同範鏡	1
6	漁隠洞遺跡 (B-2)		重 I 型 B 類	5.45	A	○		1
7	漁隠洞遺跡 (B-3)		重 I 型 B 類	5.5	A	○		1
8	漁隠洞遺跡 (C)		重 I 型 B 類	5.2	A	○		1
9	漁隠洞遺跡 (D)		重 I 型 B 類	5.9	A	○		1
10	漁隠洞遺跡 (E)		内 I 型 B 類	5.2	A	○		1
11	漁隠洞遺跡 (F)		重 I 型 ?	5.0	A	○		1
12	坪里洞遺跡 (1)	慶尚南道大邱市	重 I 型 B 類	5.7	A	○	No. 1 ~ 4・24 と同範鏡	2
13	坪里洞遺跡 (2)		重 I 型 B 類	4.5	A	○		2
14	坪里洞遺跡 (3)		重 I 型 B 類	5.6	A	○		2
15	坪里洞遺跡 (4)		重 I 型 B 類	4.6	A	○		2
16	舍羅里130号墓 (1)	慶尚北道慶州市	重 I 型 A 類	4.7	B	○	No. 27 と同範鏡	3
17	舍羅里130号墓 (2)		重 I 型 A 類	5.0	B	×	No. 18 と同範鏡	3
18	舍羅里130号墓 (3)		重 I 型 A 類	5.0	B	×	No. 17 と同範鏡	3
19	舍羅里130号墓 (4)		重 I 型 A 類	4.4	B	×		3
20	有田遺跡177次調査区ST002 甕棺墓	福岡県福岡市	重 I 型 B 類	5.1	A	○		4
21	御笠地区遺跡G地区32号住居跡	福岡県筑紫野市	重 I 型 B 類	4.4	A	不明		5
22	続命院遺跡	福岡県みやこ市	内 I 型 A 類	6.1	B	○	No. 30 と同範鏡	6
23	天神遺跡	佐賀県三養基郡	重 I 型 B 類	4.55	A	×		7
24	二塚山遺跡46号甕棺墓	佐賀県神埼郡	重 I 型 B 類	5.7	A	○	No. 1 ~ 4・12 と同範鏡	8
25	タカマツノダン遺跡	長崎県対馬市	重 I 型 A 類 ?	5.5	不明	不明	縁から内区のための破片	9
26	方保田東原遺跡110-2 番地17号住居址上層	熊本県山鹿市	重 I 型 A 類	4.7	B	×		10
27	小野崎遺跡堀の内 I 区ピット	熊本県菊池市	重 I 型 A 類	4.45	B	×	No. 16 と同範鏡	11
28	小野崎遺跡堀の内 I 区SK-02	熊本県菊池市	重 I 型 A 類 ?	5.3	A ?	×		11
29	木瀬遺跡 4 号住居址	熊本県合志市	重 I 型 A 類	4.9	B	×		12
30	五丁中原遺跡 4 区 5 号住居跡	熊本県熊本市	内 I 型 A 類	6.2	B	×	No. 22 と同範鏡	13
31	新御堂遺跡79号住居跡	熊本県上益城郡	重 I 型 B 類	5.5~6.0	A	○		14
32	(伝) 菊池・阿蘇郡内	熊本県	重 I 型 A 類	5.83	B	不明		15
33	石井入口遺跡82号住居跡	大分県竹田市	重 I 型 B 類	5.5	A	○	No. 5 ~ 7 と同範鏡	16
34	石の迫第2遺跡(生目古墳群周辺遺跡G区)	宮崎県宮崎市	重 I 型 B 類	4.9	A	×	穿孔あり	17
35	横瀬遺跡 2 号住居跡	鹿児島県指宿市	重 I 型 B 類	6.5	不明	不明	縁から内区のための破片	18
36	半田山 1 号墓第1主体部	兵庫県たつの市	重 I 型 A 類	5.3	B	×		19
37	足守川加茂B遺跡竪穴住居 89	岡山県岡山市	重 I 型 B 類	4.4	A	○		20
38	真亀C地点遺跡 3 号住居跡	広島県広島市	重 I 型 A 類	6.2	B	×		21

이 글에서는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선 초기 소형방제경 중 동범경이 많아 제작지를 논하는데 있어서 중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 경북 어은동유적 및 경북 평리동유적 출토 소형 방제경의 제작 기술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그 외의 초기 소형방제경과 거꾸집의 제작 기술과의 비교를 하려고 한다. 또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 기술을 한반도에서 제작된 동경과 北部九州에서 제작된 소형방제경과 비교해서,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 기술의 계보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행한 다음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지를 제작 기술의 면으로부터 명확히 해 가고 싶다.

2. 연구사와 그 문제점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에 의해 논해져 왔지만 한반도 동남부와 北部九州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소형방제경의 제작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한 것은 梅原末治이다. 梅原은 한반도에서 제작이 개시된 후 북부九州에서도 제작되었다고 하였다⁽⁶⁾. 그 후에 高倉洋彰는 소형방제경의 분류·편년을 행하여, 각 형식에 있어서 제품의 분포역의 변화는 제작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초기의 제작지를 한반도 동남부, 후에 北部九州에서 제작이 개시되었다고 하였다⁽⁷⁾. 高倉의 논고 후에 杉原莊介는 소형방제경에는 일본과 한국에 同範鏡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⁸⁾. 杉原의 지적에 의해 분명해진 소형방제경의 동범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것은 小田富士雄이다. 小田는 동범경군에 잔존하는 範傷의 진행이나 문양의 불선명함을 검토해 동범경의 주조 순서를 분명히 하였다⁽⁹⁾. 제작지에 관해서는 梅原나 高倉가 지적한 것처럼 한반도 동남부에서 제작이 개시되었다고 하는 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까지는 소형방제경의 제작지는 「한반도 동남부에서 北部九州로」라고 하는 도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 高倉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동경 사용 습속의 결여를 지적하고, 그러한 지역에서 소형방제경의 제작이 개시되었던 것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¹⁰⁾. 高倉의 지적 후 田尻義了는 지금까지의 제작지에 관한 논고가 분포의 多寡에 의해 행해져 왔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소형방제경의 湯口の 위치가 鈕孔(鈕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제작 기술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지적하고, 소형방제경은 모두 北部九州제라고 하였다⁽¹¹⁾. 또 柳田康雄는 동경의 湯口の 위치와 湯量の 검토를 하고, 湯口와 鈕孔이 평행한 것은 전한 말 이후의 주조 기술이며, 소형방제경의 제작 기술은 한반도의 다뉴세문경의 기술과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다⁽¹²⁾. 이것에 대해 필자는 거푸집에 잔존하는 中子를 설치하기 위한 음각(中子 설치 시설)의 구조와 제품에 잔존하는 中子 설치 흔적에 주목해서, 鈕孔제작 기법에서 보면 초기 소형방제경 중에는 한반도에서 제작 기술의 계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¹³⁾.

이와 같이 소형방제경의 제작지는 제품의 분포에 의한 논의에서 제작 기술을 중심으로 한 논의로 그 중심이 이행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형방제경의 제작 기술이 일관해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절을 인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본론에서는 어은동이나 평리동 출토 소형방제경과 다른 소형방제경의 주조 기술의 비교를 행한다. 또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 기술을 한반도에서 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동경과 비교하는 것으로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지를 밝혀 간다. 또한 어은동유적과 평리동 출토 소형방제경의 호칭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小田의 논문에서 쓰이고 있는 것⁽⁹⁾을 사용한다.

3. 어은동유적·평리동유적출토경의 개요

①어은동유적

어은동유적에서는 銅泡, 帶鉤, 銅環 등의 다량의 청동기가 일괄 출토하고 있고, 동경은 17면(이들 중 2면은 경식 등 불명) 출토되고 있다⁽¹⁴⁾. 출토된 동경은 전한경의 이체자명대경 2면, 鵬龍문경(鵬龍文鏡) 1면, 한반도제라고 생각되고 있는 방사상문경(放射狀文鏡) 1면, 소형방제경 11면이다. 이들 중에 이체자명대경과 鵬龍문경은 전한후반(기원 전 1세기 후반)의 제작되었다. 소형방제경은 內行文帶를 가지는 것(이

하, 내행화문계라고 적는다)이 1면이며 그 외는 모두 내행화문대를 갖지 않는 것(이하, 중권문계라고 적는다)이다(사진 1의 1~5).

소형방제경 중에는 4면(A군) 및 3면(B군)의 동범경이 포함되어 있다. A군은 평리동유적 출토 소형방제경(4面) 중의 1면(평리동1경)과 佐賀県 二塚山46호 甕관출토경⁽¹⁵⁾(이하, 二塚山鏡이라고 적는다.)과 동범경이며 B군은 大分県 石井入口 82호 주거지 출토경⁽¹⁶⁾(이하, 石井入口鏡이라고 적는다.)과 동범경이다.

②평리동유적

평리동유적에서는 청동이기류, 이형청동기, 마구 등의 다량의 청동기나 철기 등이 출토하고 있고 동경은 6면 출토되고 있다⁽¹⁷⁾. 동경은 전한경의 횡문경 1면, 한반도제 라고 생각되는 방사상문경 1면, 소형방제경 4면이다. 소형방제경은 모두 중권문계로, 상술한 바와 같이 평리동 1경은 어은동유적 출토 소형방제경 A군과 동범경이다(사진 1의 6~8).

양 유적에서는 방사상문경(方射狀文鏡)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동경이 출토되고 있다. 방사상문경은 현재까지 어은동과 평리동 그리고 徳島県 カネガ谷遺跡⁽¹⁸⁾에서 출토되고 있다. 카네가谷 출토경은 어은동이나 평리동 출토 방사상문경과 비하면 소형으로, 직경은 소형방제경과 거의 같은 크기이다. 같은 문양 구성이라고 추정되는 것으로 熊本県 諏訪原遺蹟 출토경⁽¹⁹⁾이 있다.

양 유적 출토의 소형방제경은 전한경인 이체자명대경을 원경으로서 제작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으로, 狹縁으로 꺾수문을 주요한 문양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까지의 분류·편년에 있어 가장 초기의 것으로 위치지어지고 있다⁽²⁰⁾. 제작되었던 시기는 야요이 시대 후기 초두 전후(기원 전후)였다고 생각되고 있다. 일본열도에서는 같은 소형방제경이 北部九州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상술한 바와 같이 寺徳遺蹟에서 거꾸집도 출토되고 있다.

4. 어은동유적·평리동유적 출토 소형방제경의 검토

우선 어은동유적과 평리동유적의 제작 기술의 검토를 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뉴공제작에 있어서의 구조혼적인 中子설치혼적⁽²¹⁾이다. 中子설치혼적이라는 것은 中子와 中子설치시설과의 사이에 생긴 공간에 湯이 흘러들어, 흘러든 湯이 굳어졌기 때문에 생긴 구조 혼적이다(그림 2). 中子설치혼적에 시점을 두는 것은 이것이 구조 후에 처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집단의 계보나 기술적 배경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어은동유적과 평리동유적의 소형방제경의 구조혼적을 검토하기로 한다.

①어은동A군

어은동A군은 평리동1경・二塚山鏡과 동범경이다. 어은동A군의 中子설치혼적은 동범경의 제작각으로 일정하지 않다(사진 2)⁽²²⁾. 中子설치혼적을 보면 어은동A-3경은 삼각형상, 평리동 1경은 「ㄱ」 자상의 혼적이 보이고, 二塚山鏡은 혼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 중 어은동A군의 中子설치방법을 나타내는 것은 평리동 1경이다. 평리동 1경은 「ㄱ」 자상의 中子설치혼적 가운데, 뉴공의 연장선상의 부분은 거의 융기하고 있지 않다. 뉴공은 동경 배면의 內區보다도 위에 있고, 中子를 설치하는 위치는 동경 배면보다 뉴의 頂部 측

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뉴의 형태를 보면, 湯口 측에 中子와 中子설치시설의 사이에 흘러 들어 버린 湯이 응고한 흔적이 보인다(사진 2의 2 화살표부분·사진 2의 4). 이러한 뉴의 형태는 특히 평리동 1경에 있어서 뚜렷하고, 뉴공의 지름이 매우 작아져 버리고 있다. 이 뉴의 형태는 동범경 모두에게 볼 수 있지만, 二塚山鏡에는 이 흔적을 거의 볼 수 없다(사진 2의 3). 이러한 흔적은 中子와 中子설치시설의 저면의 사이에 공간이 있었을 경우에 잔존한다고 생각된다.(그림 3). 즉 中子설치 후에 湯口와 반대측을 압박해 湯口측이 조금 떠올라 버렸기 때문에 잔존한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은동 A군은 동범경 간의 각각이 中子설치흔적이 다르게 있고(평리동 1경은 中子설치흔적이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中子설치 시에 한쪽 편의 中子が 떠오르는 경우가 있던 것 같다.

②어은동B군

어은동B군은 石井入口경과 동범경이다. 어은동B군의 中子 설치 흔적을 보면(사진 3), 어은동B-1경은 타원형, B-2경은 湯이 응고한 흔적과 中子の 형태의 파인 곳, 石井入口鏡은 타원형의 흔적이 잔존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할 것은 B-2경의 흔적이다. B-2경에는 뉴공의 연장선상에 湯이 굳어져서 된 원형에 용기 한 부분이 있다(사진 3의 2 화살표 부분). 湯口の 반대 측에는 뉴공으로부터 원형으로 용기한 부분(사진 3의 2하의 화살표 부분)을 향해 中子설치흔적이 남아 있지만, 원형의 용기는 다른 부분보다 돌출하고 있다. 또 湯口 측에도 상술한 원형으로 용기 한 부분이 보이지만(사진 3의 2 위의 화살표 부분), 이 쪽은 용기했던 부분 이외 흔적은 잔존하지 않고 있다. B-2경의 원형의 용기 부분은 中子 설치 시설에 中子를 설치했을 때에, 양자간에 공간이 있어서 때문에 생긴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뉴공의 연장선상에 이러한 용기 한 흔적이 보이는 것은, 이 부분에만 공간이 존재하고 다른 부분에는 거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③어은동C경·D경

어은동C경·D경은 中子설치흔적이 湯口の 반대측에만 잔존한다. C경의 뉴공위치는 湯口 측도 반대 측도 경배면의 내구면 보다 위에 있고, 中子설치흔적은 조금 용기 하는 부분이 있는 정도이다. D경은 湯口の 반대측에만 약간 용기 하는 中子설치흔적이 잔존하고 있고, 형상은 「ㄱ」 자 모양이다. 양 거울 모두 中子설치 흔적이 조금 남아 있고 뉴공의 위치나 中子 설치 흔적의 형상에서 제작 기술상의 공통성이 보인다.

④어은동E경

어은동E경도 中子 설치 흔적이 湯口の 반대측에 잔존하고 있다. 中子 설치 흔적은 거의 잔존하지 않지만, 뉴공의 연장 선상에만 용기하고 있는 부분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용기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湯口の 반대 측의 中子설치시설의 端部만이 잔존한다.(사진 4의 1 화살표 부분). 다른 부분에는 中子 설치 흔적은 잔존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흔적은 어은동B군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中子 설치 시에 中子와 中子 설치 시설의 사이에 조금 공간이 생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湯이 흘러들어 버렸기 때문에 생긴 흔적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른 부분에는 湯이 흘러드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⑤평리동 2거울

평리동 2경은 中子 설치 흔적이 타원형으로 잔존하고 있다. 湯口 측의 뉴공 부근은 움푹 패어 있지만 이

것은 주조불량에 의한 것일 것이다. 湯口의 반대 측의 뉴공은 경배면의 내구와 거의 같은 높이이며, 中子 설치 흔적 만이 융기하고 있다.

⑥평리동 3 경

평리동 3 경은 湯口 측의 뉴공이 주조불량에 의해 반대측보다 넓어진다. 뉴공은 경배면 내구 보다 약간 상위에 있다. 中子 설치 흔적은 반원형으로 십자로 뻗은 문양 위에 잔존하고 있다. 湯口 측의 뉴공에는 어은동A군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中子와 中子설치시설의 저면에 생긴 공간에 湯이 흘러든 흔적이 조금 잔존하고 있다(사진 4의 2 화살표 부분). 평리동 3경의 中子 설치 때도 그림 3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中子の 다른 한쪽이 압박받았다고 생각된다.

⑦평리동 4 경

평리동 4 경은 中子설치흔적이 잔존해 있지 않고, 뉴공은 내구면보다 상위에 있다. 뉴는 반구형은 아니고 단면 원형의 봉상으로 되어있다.

어은동유적과 평리동유적 출토 소형방제경의 뉴공 제작기법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 동범경의 각각에서 中子 설치 흔적이 다르다.
- 中子 설치할 때, 공간이 생길 부분과 안 생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中子설치흔적이 잔존할 부분과 잔존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난다.
- 湯口와 반대 측의 뉴공이 경배면의 내구보다 밑에 위치하는 것은 없고, 모두 경배면내구와 같은 높이거나 상위에 위치한다.

5.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 기술

여기서 어은동유적과 평리동유적 출토 소형방제경의 주조 흔적을 다른 초기 소형방제경과 비교해 보려고 한다.

우선 초기 소형방제경의 거꾸집의 中子 설치 시설인데, 寺德遺蹟 출토 거꾸집은 中子 설치 시설만이 조각되어있고, 여기에 中子을 그대로 설치해 주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¹³⁾. 이러한 방법으로 주조가 행해졌을 경우, 中子が 中子 설치 시설과 동형 동대이면 제품에 中子 설치흔적은 잔존하지 않게 된다. 즉 中子와 中子설치시설의 사이에 공간이 안 생기면 中子 설치흔적은 잔존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中子와 中子설치 시설의 사이에 공간이 생겨 버렸을 경우는 거기에 湯이 흘러들어, 中子 설치 흔적이 잔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거꾸집에 잔존하는 中子설치시설만으로는 中子설치 후의 상태를 복원하는 것은 어렵다. 즉 거꾸집에 조각한 中子설치시설의 형상 만으로는 北部九州에 있어서의 소형방제경의 제작 기술을 복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럼 다음으로, 동범경의 中子설치흔적의 비교를 행한다. 지금까지 초기 소형방제경 중 동범경은 5조 확인되고 있다⁽²³⁾. 어은동A군·B군의 中子 설치 흔적은 동범경의 각각에서 다르고, 어은동B-2경과 같이 中子 설치 흔적이 일부만 돌출하는 것이 나타난다. 한편 다른 동범경의 中子설치흔적을 보면 잔존 상태는 다르지만 형상이나 크기는 거의 같다. 한국 경주 사라리유적 130호묘⁽²⁴⁾(사진 5의 1)과 熊本県 小野崎遺蹟

堀の内Ⅰ区피트⁽²⁵⁾(사진 5의 2) 출토경(綾杉文을 主文으로 하는 것)은 동범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中子설치흔적은 동형동대이며, 사라리유적 130호묘 출토경 중 2면의 동범경(S자문을 주문으로 하는 것)도 中子설치흔적의 형상이나 크기에 차이는 없다. 또 中子설치흔적이 일부만 잔존하는 것이나 전혀 잔존해있지 않는 것은 없다.

이와 같이 초기 소형방제경의 中子설치흔적은 2분할 수 있고, 이것은 中子の 설치방법이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어은동A군이나 평리동 3경과 같이 中子が 압박받아 움직인 상황이나, 어은동B-2경이나 어은동E경과 같이 中子설치흔적의 일부만이 돌출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제작에 있어서는 中子설치 후에 생긴 공간을 충전하는 것에 의해 中子를 고정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충전이 불충분하고鈕공의 연장선상 등에 공간이 생길 경우에는, 어은동B-2경이나 어은동E경과 같은 흔적이 잔존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공간이 충전된 부위는 中子설치흔적이 잔존하지 않기 때문에, 中子설치흔적은 일부 밖에 잔존하지 않게 된다. 한편 사라리경 등에 볼 수 있는 中子설치흔적은 모든 부분이 같은 양상으로 잔존하고 있고, 동범경 간에 차이도 없고, 공간을 충전한 흔적은 볼 수 없다.

즉 초기 소형방제경의 中子 설치 방법은 中子를 설치한 후에 생긴 공간을 충전하는 것(A류)과 中子를 설치할 뿐인 것(B류)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그림 4). A류의 경우는 동범경의 中子설치흔적이 각각 다른 것부터, 주조 때의 충전의 방법은 매번 다른 것 같다. B류의 경우는 충전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범경의 中子설치흔적은 동형동대가 된다.

이러한 동범경 이외의 中子설치흔적을 보면, A류에 의해서 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은동유적과 평리동유적 출토 소형방제경을 제외하면 매우 적다. A류는 어은동유적·평리동유적 출토경이나 有田遺蹟 ST002옹관 출토경⁽²⁶⁾(그림 1의 4, 이하 有田鏡이라고 적는다), 御笠地区遺蹟G지구 32호 주거지 출토경⁽²⁷⁾ 등 꺾수문을 주요한 문양으로 하는 鏡群에서 나타난다. 이것에 대해, B류에 의해 제작된 것은 사라리유적 130호묘 출토경, 真龜C遺蹟 출토경⁽²⁸⁾이나 五丁中原遺蹟 출토경⁽²⁹⁾(그림 1의 3) 등의 北部九州에서 거꾸집이 출토하고 있는 형식의 것이나 전한의 이체자명대경문양을 충실히 모방하는 일군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 기술은 결코 일관되지 않고 어은동유적이나 평리동유적 출토경과 같은 제작 기술에 의해서 제작된 일군(A류)과 이것들과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작된 일군(B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기술적 차이는 모방한 문양의 차이에도 통하고 있어 꺾수문을 주요한 문양으로 하는 일군과 전한경을 충실히 모방한 일군의 제작 기술의 계보는 한결같지 않았던 것 같다.

6. 소형방제경의 제작기술의 계보

상술과 같이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기술은 中子설치방법의 검토에서 2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각각의 제작 기술을 北部九州 및 한반도에서 제작되었다고 생각된 동경과 비교하려고 한다.

(1) 北部九州에 있어서의 소형방제경의 제작기술

초기 소형방제경에 이어 제작된 소형방제경은 주연부가 좁고, 내행화문대가 연부의 안쪽에 배치되는 것이다(내행화문계Ⅱ형 A류). 내행화문계Ⅱ형 A류의 거꾸집에서 鈕 및 中子 설치시설이 잔존하는 것은 현재까지 출토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福岡県 須玖遺蹟群 등의 北部九州에서 거꾸집이 출토하고, 제품의 분포

도 北部九州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北部九州에서의 제작이라고 생각되는 내행화문계Ⅱ형 B류의 제작 기술을 보기로 한다.

내행화문계Ⅱ형 B류는 中子설치흔적이 잔존하는 것이 매우 많다(사진 6의 1·2). 中子설치흔적을 보면 湯口측은 주조불량에 의해서 잔존하지 않지만 湯口の 반대 측은 그 대부분에 中子설치흔적이 잔존하고 있다. 게다가 中子설치흔적은 일부가 잔존하는 것은 없고 中子와 中子설치시설의 사이에 생긴 공간의 형태의 中子설치흔적이 잔존한다. 또 이러한 中子설치흔적은 내행화문계Ⅱ형 B류와 동시기에 北部九州에서 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행화문계Ⅳ형이나 중권문계Ⅱ형에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사진 6의 3). 내행화문계Ⅱ형 A류도 Ⅱ형 B류와 같은 中子설치흔적이 보이는 것에서 양자의 제작 기술은 연속하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北部九州에서 제작된 소형방제경은 中子を 설치한 후에 충전하지 않고 주조되는 것(B류)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초기 소형방제경의 가운데 北部九州에서 거꾸집이 출토된 형식이나 전한경의 충실한 모방을 행하는 한 무리와 같은 제작 기법이다.

(2) 한반도에 있어서의 동경의 제작기술

초기 소형방제경이 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야요이시대 중기 말부터 후기 초두)에 한반도에 서 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동경에는 방사상문경이 있다. 방사상문경은 상술한 바와 같이 어은동유적·평리동유적·カネガ谷遺蹟에서 출토하고 있다. 직경은 어은동유적과 평리동유적 출토 방사상문경이 14.9cm, カネガ谷遺蹟 출토 방사상문경이 6.1cm이다. 직경으로 말하면 カネガ谷경은 초기 소형방제경과 거의 같은 사이즈이며 한반도에 있어서도 소형의 동경이 제작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상문경은 특수한 문양 구성이며, 어은동유적 출토경은 평연(平緣)-내행화문대-문양대-원권(圓圈)-문양대-원권-鈕로, 평리동유적 출토경은 뉴와 원권의 사이에 주문(珠文)이 배치된다. 어은동유적 및 평리동유적 출토 방사상문경의 中子설치흔적을 보면, 湯口측·湯口の 반대 측은 양쪽 모두에 잔존하고 있지 않다(사진 7왼쪽). 그러나 兩鏡의 뉴공 부근의 평탄면(中子が 설치된 부분)에 요철이 보인다. 이것은 中子설치시설에 中子를 둔 후에 이 부분을 충전했을 때에, 충전한 부분의 표면에 요철이 보였기 때문에 생긴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³⁰⁾. 湯口の 위치는, 어은동유적 출토 경에 대해 뉴공의 연장선상의 가장자리가 약간 둥글게 처리된 점에서 뉴공의 연장선상에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두 동경 모두 뉴가 주조불량으로 변형되었고, 특히 어은동유적 출토경은 湯口の 반대 측은 뉴공(사진 7 右下)은 장방형이지만, 湯口측의 뉴공(사진 7 右上)은 장방형이던 것이 주조불량에 의해 찌그러진 형태가 되어 버리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사상문경의 제작 기술을 보면, 中子설치시설에 中子를 설치한 후에 中子설치시설과 中子の 사이에 생긴 공간을 충전한다고 하는 기법(A류)이 이용되고 있고 이 기법은 어은동유적이나 평리동유적 출토경과 공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뉴나 뉴공의 형상이 주조불량에 의해 변형되어버린 기술적으로 치졸한 점도 간취 된다.

7.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지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초기 소형방제경은 제작기술에서 어은동유적이나 평리동유적 출토경 등의 한 무리(A류)와, 사라리유적 130호묘나 五丁中原유적 등의 한 무리(B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자

는 한반도 동경 제작기술과 공통의 기술이 이용되고 있고, 후자는 北部九州의 소형방제경 제작기술과 같은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소형방제경의 中子설치흔적의 검토에서 소형방제경의 제작 기술은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차이는 湯量の 점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어은동A군은 유공의 연장선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장자리가 상당히 얇아지고 있고 주연부의 폭도 다른 부분에 비해 넓어지고 있다(사진 8의 1). 이 현상은 동범경의 모두에 거의 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柳田가 有田鏡을 예로 지적한 것과 같이⁽³¹⁾ 注湯 때의 湯量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은동A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湯量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 가장자리의 변형은 어은동B군이나 어은동E경, 평리동 2경, 평리동 4경(사진 8의 2)에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다른 어은동유적 및 평리동유적 출토 소형방제경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저한 흔적은 아니지만 모두 湯口부분의 가장자리가 얇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어은동유적·평리동유적 출토 소형방제경의 대부분에 있어서 湯口부분에 가장자리의 파인 곳이 나타나는 것에서 이러한 제작에 대해서는 湯量 부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상정된다. 한편 北部九州의 제작 기술과 공통성이 보인 한 무리는 이러한 湯量 부족을 거의 볼 수 없다⁽³²⁾. 즉 어은동유적이나 평리동유적과 같은 한반도의 제작 기술에 계보를 요구할 수 있는 한 무리는 湯量 부족이 빈번히 생기고 있고, 北部九州와 같은 제작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일군은 湯量 부족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작 기술의 검토에서, 어은동유적이나 평리동유적 출토경 등의 일군을 한반도에서의 제작, 사라리유적 130호묘나 五丁中原遺蹟등의 일군을 北部九州에서 제작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이 아닐까. 田尻나 柳田이 말하는 것처럼 湯口の 위치에 제작기술상의 계보를 찾아낸다면 한반도제라고 생각된 방사상문경의 湯口の 위치가 유공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에서 오히려 소형방제경의 湯口の 위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제작 기술과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형방제경이 제작되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청동기 제작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 방사상문경이나 다뉴무문경⁽³³⁾이라고 하는 동경의 제작도 소수이지만 행해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소형방제경은 주조상태가 나쁘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청동기 제작기술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토제범을 사용했다고 생각되고 있는 다뉴세문경은 그 분포가 한반도의 서쪽에 편재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소형방제경과는 직접적으로 연속하지는 않는다. 한편 전한경이나 소형방제경의 분포의 중심은 한반도 동남부에 있고 지금까지의 청동기의 제작 지와는 달랐다고 생각되며 거기에는 기술적 차이가 존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한경이 한반도 동남부에 집중하는 것도 이 지역에서 소형방제경 생산이 행해졌던 가능성을 높게 한다. 또한 마탁이나 동탁에도 소형방제경과 같은 기술적인 치졸함이 보이는 것으로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소형방제경 생산이 행해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이번 검토는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후의 제작 기술의 변천이나 생산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형방제경의 생산은 北部九州만은 아니고 近畿 지방 등에서도 행해지고 있어⁽³⁴⁾ 北部九州의 소형방제경 제작자 집단과의 관계도 향후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향후는 제작기술의 면에서의 검토를 행하여 야요이시대에 있어서의 동경 생산의 실태를 명백히 해가고 싶다.

본고에 기초 잡을 즈음에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을 비롯한 諸機關에서 본 논문의 검토 대상인 초기 소형방제경의 조사를 꽤히 허가해주셨고 자료를 관찰할 때에는 여러모로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佐賀県立博物館, 佐賀県教育委員会, 竹田市教育委員会 등 제 기관에서는

사진의 게재를 허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하의 여러분들 그리고 제 기관에서 자료 조사나 연구회 때에 많은 조언, 지도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경청생략, 오십음순서, 한국은 가나다라 순).

(日本)

網田龍生、家田淳一、岡本一秀、奥村俊久、小畑弘己、城戸誠、木下尚子、金姓旭、木村達美、清田純一、隈昭志、蔵富士寛、甲元眞之、三枝健二、柴田英樹、杉井健、園井正隆、高見淳、瀧本正志、竹中克繁、田尻義了、常松幹雄、藤丸詔八郎、村上久和、柳田康雄、山口健剛

大分県立歴史博物館、岡山県古代吉備文化財センター、菊池市教育委員会、熊本市教育委員会、久留米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佐賀県立博物館、佐賀県教育委員会、城南町歴史民俗資料館、竹田市教育委員会、筑紫野市歴史博物館、兵庫県教育委員会、広島県立歴史民俗博物館、福岡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みやこ町歴史民俗博物館、宮崎市教育委員会、山鹿市博物館、山鹿市出土文化財管理センター

(韓国)

村松洋介、오세은、이양수、최성애、장용준、박경도、박민지、박천수、平郡達哉
国立慶州博物館、国立大邱博物館

註

- (1) 高倉洋彰 1972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について」 『考古学雑誌』 第58巻第3号 日本考古学会
高倉洋彰 1985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について(承前)」 『考古学雑誌』 第70巻第3号 日本考古学会
- (2) 田尻義了 2003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製作地—初期小形仿製鏡の検討—」 『青丘学術論集』 第22集 財団法人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田尻義了 2004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生産体制論」 『日本考古学』 第18号 日本考古学会
- (3) 南健太郎 2007 「弥生時代九州における漢鏡の流入と小形仿製鏡の生産」 『熊本大学社会文化研究』 5 熊本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
- (4) 본고에서 이용하는 소형방제경의 형식은 필자 분류에 의한다. 초기 소형방제경의 제작 시기는 야요이시대 중기 말~후기 초두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술 주 3 참조.
- (5) 江島伸彦 1999 「福岡県田主丸町益生田寺徳遺跡出土の鋳型について」 『九州考古学』 第74号 九州考古学会
- (6) 梅原末治 1959 「上古初期の仿製鏡」 『国史論集』 (一) 読史会
- (7) 前掲註1
高倉洋彰 1993 「弥生時代仿製鏡の製作地」 『季刊考古学』 第43号 雄山閣
- (8) 杉原荘介 1978 「日・韓出土の同鋳型による小銅鏡」 『日本考古学協会昭和53年度大会研究発表要旨』 日本考古学協会
- (9) 小田富士雄 1982 「日・韓地域出土の同范小銅鏡」 『古文化談叢』 第9集 九州古文化研究会
- (10) 高倉洋彰 2002 「弁韓・辰韓の銅鏡」 『韓半島考古学論叢』 すずさわ書店
- (11) 前掲註2 (2003)
- (13) 南健太郎 2005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鈕および鈕孔製作技術—その技術と系譜に関する予察—」 『鏡範研究』 III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二上古代鋳金研究会
- (14) 梅原末治・藤田亮策編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養徳社
- (15) 石隈喜佐雄・七田忠昭編 1979 『二塚山』 佐賀県文化財調査報告書第46集 佐賀県教育委員会
- (16) 後藤幹彦編 1992 『菅生台地と周辺の遺跡XV』 竹田市教育委員会

- (17) 尹容鎮 1981 『韓國青銅器文化研究—大邱坪里洞出土—括遺物檢討—』 『韓國考古學報』 10・11 韓國考古學硏究會
- (18) 原芳伸編 2005 『四國横斷自動車道建設に伴う埋藏文化財発掘調査報告』 徳島県埋藏文化財センター調査報告書第62集 徳島県教育委員会・徳島県埋藏文化財センター・日本道路公団
- (19) 甲元眞之他 1983 「Ⅱ 弥生時代」 『肥後考古』 第3号 肥後考古学会
- (20) 前掲註1・2・3
- (21) 前掲註13 P.17-21
- (22) 寫眞2~寫眞7은 위가 주입구가 위치하는 방향이다.
- (23) 前掲註3、표1參照
- (24) 河眞鎬・金美淑編 2001 『慶州舍羅里遺跡Ⅱ—木棺墓、住居址—』 嶺南文化財硏究院學術調査報告書第32冊 嶺南文化財硏究院
- (25) 高見淳編 2006 『小野崎遺跡』 菊池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1集 菊池市教育委員会
- (26) 榎本義嗣編 1997 『有田・小田部28』 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第513集 福岡市教育委員会
- (27) 奥村俊久編 1986 『御笠地区遺跡』 筑紫野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15集 筑紫野市教育委員会
- (28) 中田昭編 1977 「真亀C地点遺跡」 『高陽新住宅市街地開発事業地内埋藏文化財発掘調査報告』 広島県教育委員会
- (29) 金田一精編 1997 『五丁中原遺跡』 五丁中原遺跡群第1次調査区発掘調査概要報告書 熊本市教育委員会
- (30) 뉴공부근의 요철은 中子를 眞土 등으로 만들어 표면에 요철이 있었을 경우도 잔존할 가능성이 있고, 충전 시에 생겼던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中子설치흔적이 뉴공부근에 약간 잔존하는 것에서, 中子를 설치했던 때에는 공간이 잔존해 있고 뉴공에 가까운 부분 이외는 충전되었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31) 前掲註12 P.37・42
- (32) 福岡県京都郡 米야코町 続命院遺蹟 출토경은 湯口の 반대 측에 주연부의 팬 곳이 보이지만, 동범경인 五丁中原遺蹟 출토경에는 이 팬 곳은 보이지 않는다. 湯量 부족에 기인하는 주연부의 팬 곳은 湯口측의 가장자리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続命院遺蹟 출토경의 주연부의 팬 곳은 湯量 부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続命院遺蹟 출토경의 자세한 것은 이하의 문헌을 참고 받고 싶다.
柳田康雄 1997 「3 銅鏡」 『徳永川ノ上遺跡Ⅲ』 一般国道10号線椎田道路関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第9集 福岡県教育委員会
- (33) 경북 조양동 5호 목관묘에서는 다뉴무문경이 출토된다. 이 목관묘는 공반유물이나 묘의 형태로 보아 전한경 4면이 출토된 조양동38호 목관묘와 동시기에 위치시킬 수 있다. 다뉴무문경은 소형이며(5.3cm), 中子설치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다뉴무문경도 A류에 의해서 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양동 출토경에 대해서는 이하의 문헌을 참고받고 싶다.
최성애他編 2003 『慶州朝陽洞遺蹟Ⅱ』 国立慶州博物館學術調査報告第13冊 国立慶州博物館
- (34) 田尻義了 2005 「近畿における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生産」 『東アジアと日本—交流と変容』 第2号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硏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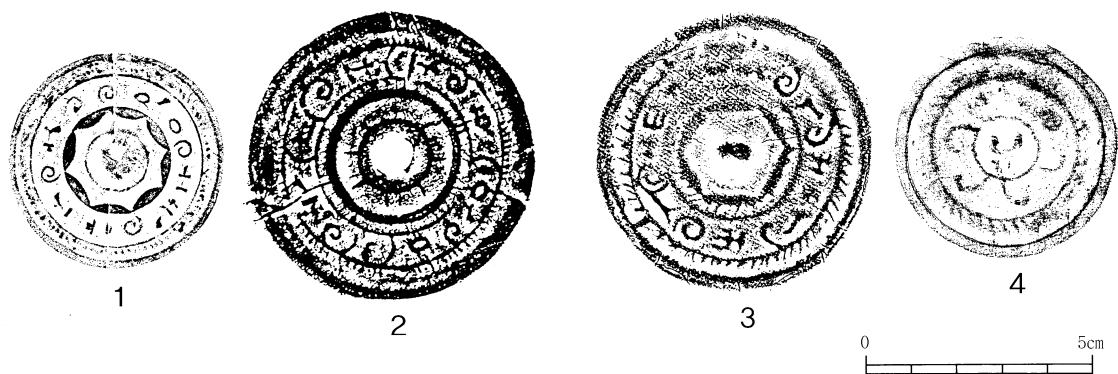
<표1 참고문헌>

- 1 : 前掲註9・14
- 2 : 前掲註17
- 3 : 前掲註24
- 4 : 前掲註26
- 5 : 前掲註27
- 6 : 前掲註32
- 7 : 前掲註9
- 8 : 前掲註15

- 9：対馬遺跡調査会 1963 「長崎県対馬調査報告（一）」 『考古学雑誌』 第49巻第1号 日本考古学会
- 10：山口健剛編 2005 『方保田東原遺跡（6）』 山鹿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18集 山鹿市教育委員会
- 11：前掲註25
- 12：佐藤伸二 1983 「11 S字文鏡」 『肥後考古』 第3号 肥後考古学会
- 13：前掲註29
- 14：清田純一編 2003 『宮地遺跡群』 城南町文化財調査報告書第13集 城南町教育委員会
- 15：野田拓治 1983 「12 重圈文鏡」 『肥後考古』 第3号 肥後考古学会
- 16：前掲註16
- 17：中山豪・久富なをみ編 1996 『史跡生目古墳群周辺遺跡発掘調査報告書』 宮崎市教育委員会
- 18：弥栄久志編 1982 『横瀬遺跡』 指宿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6 指宿市教育委員会
- 19：渡辺昇 1987 「半田山古墳群」 『兵庫県埋蔵文化財調査年報』 昭和59年度 兵庫県教育委員会
- 20：島崎東・光永真一編 1995 『足守川河川改修工事に伴う発掘調査 足守川B遺跡』 岡山県埋蔵文化財発掘調査報告94 岡山県教育委員会
- 21：前掲註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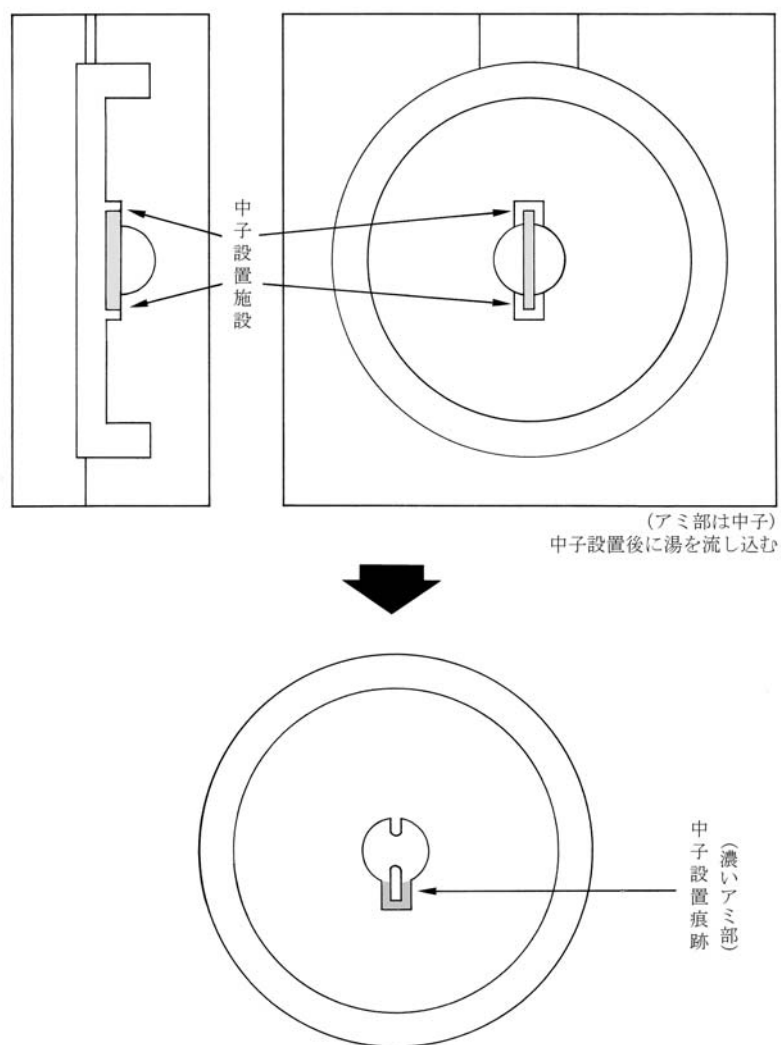
<図版出典>

- 그림 1-1：岡崎敬 1977 「鏡とその年代」 『立岩遺蹟』 立岩遺蹟調査委員会
 그림 1-2：前掲註33
 그림 1-3：前掲註29
 그림 1-4：前掲註26
- 상기 이외는 필자 작성. 사진 1~8은 필자가 촬영해 이하의 각 소장기관의 허가를 받고 게재하였습니다.
- 寫眞 1-1~5、寫眞 2-1、寫眞 3-1・2、寫眞 4-1、寫眞 5-1、寫眞 7：國立慶州博物館
 寫眞 1-6~8、寫眞 2-2・4、寫眞 4-2、寫眞 8-2：國立大邱博物館
 寫眞 2-3、寫眞 8-1：佐賀県立博物館
 寫眞 3-3：竹田市教育委員会
 寫眞 5-2、寫眞 6-1：菊池市教育委員会
 寫眞 6-2・3：佐賀県教育委員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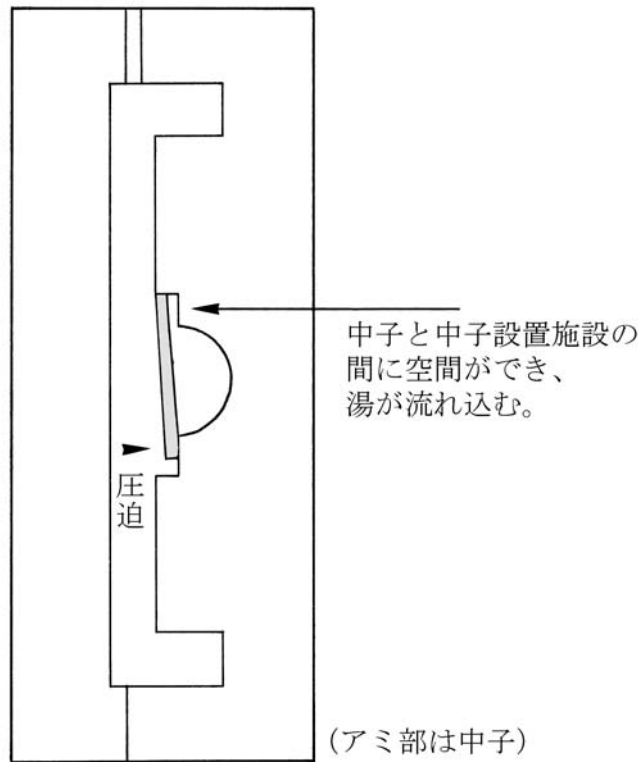


도면 1. 이체지명대경(좌)와 초기소형방제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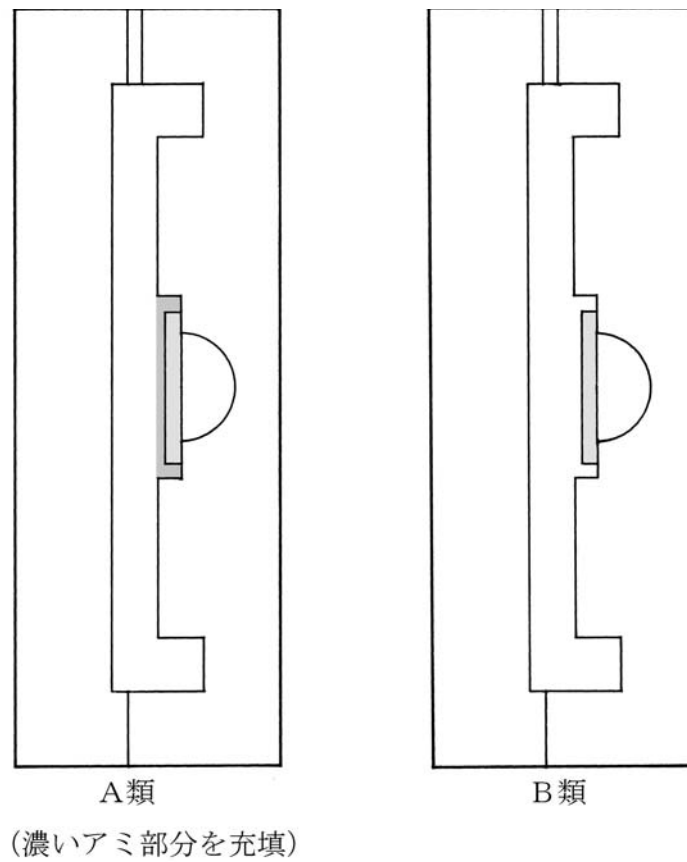
1. 立岩34號甕棺 2. 朝陽河38號木棺 3. 五丁中原遺蹟 4. 有田遺蹟ST002甕棺



도면 2. 각 부분 명칭



도면 3. 어은동A군의 中子설치상태



도면 4. 中子설치방법의 분류



1. 어은동A군경



2. 어은동B군경



3. 어은동C경



4. 어은동D경



5. 어은동E경



6. 평리동2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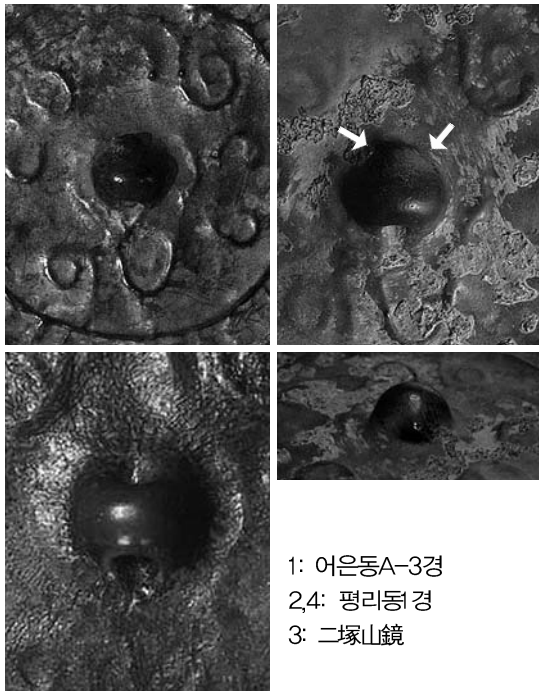
7. 평리동3경



8. 평리동4경

※평리동1경은 어은동A군과 동범경
1~5: 경주박물관소장
6~8: 대구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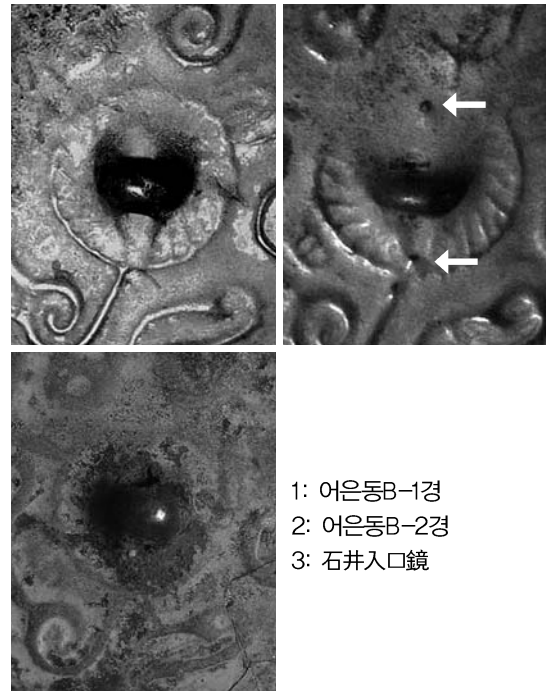
사진 1. 어은동유적, 평리동유적 출토 소형방제경



1: 어은동A-3경
2,4: 평리동경
3: 二塚山鏡

사진 2. 어은동A군의 중자설치흔적

1: 경주박물관소장 2,4: 대구박물관소장
3: 佐賀縣立博物館소장



1: 어은동B-1경
2: 어은동B-2경
3: 石井入口鏡

사진 3. 어은동B군의 중자설치흔적

1,2: 경주박물관소장 3: 竹田市教育委員會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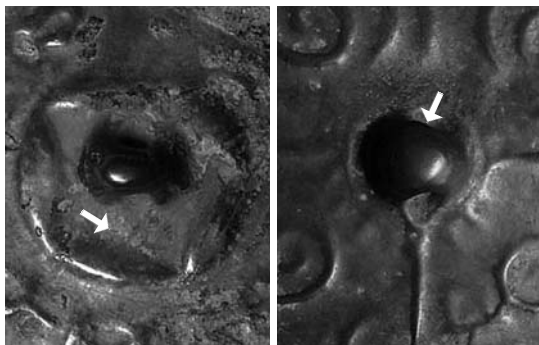


사진 4. 어은동E경, 평리동3경의 중자설치흔적

1: 어은동E경(경주박물관소장)
2: 평리동3경(대구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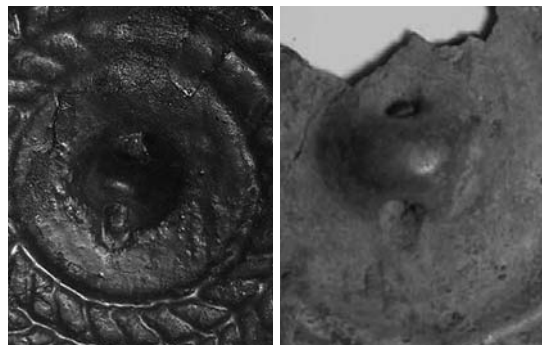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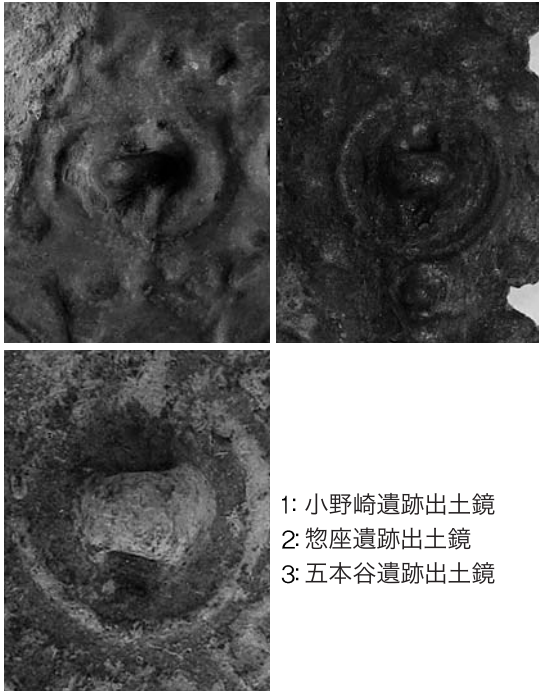


사진 5. 동범경의 중자설치흔적

1: 사라리130호묘출토경(경주박물관소장)
2: 小野崎遺蹟出土鏡(菊池市教育委員會소장)



- 1: 小野崎遺跡出土鏡
- 2: 惣座遺跡出土鏡
- 3: 五本谷遺跡出土鏡

사진 6. 北部九州製의 중자설치흔적
 1: 菊池市教育委員會 소장
 2,3: 佐賀縣教育委員會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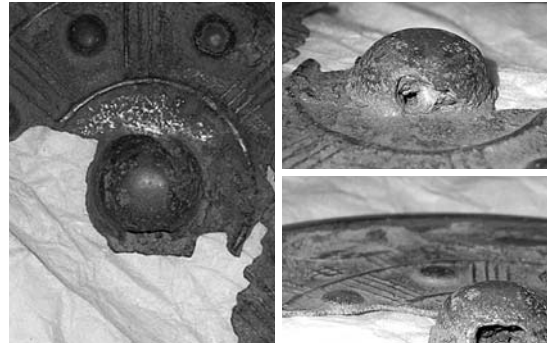


사진 7. 방사상문경의 중자설치흔적과 뉴공
 (어은동유적 출토경 : 경주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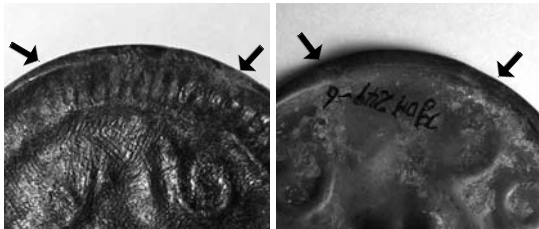


사진 8. 소형방제경의 湯量부족
 1: 二塚山鏡 (佐賀縣博物館 소장)
 2: 평리동4경 (대구박물관 소장)

韓半島における小形仿製鏡の生産

—製作技術からみた初期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製作地—

南 健太郎

1. はじめに

弥生時代には中期から後期にかけて大陸・韓半島から銅鏡がもたらされており、中期中頃には韓半島から多鈕細文鏡が、中期後半から後期にかけては中国から漢鏡（前漢鏡・後漢鏡）が流入した。これらに加えて、弥生時代後期初頭からは漢鏡を模倣した弥生時代小形仿製鏡（以下、小形仿製鏡と記す）が製作されるようになる。漢鏡は弥生時代中期後半から後期において副葬品の中でも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たことが指摘されており、小形仿製鏡も北部九州と他地域を結びつけるような性格を有していた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ではそのような性格の小形仿製鏡はどこで製作されたのであろうか。

このような問題に対して、これまでは鋳型や製品の分布から研究が進められてきた。しかし鋳型の出土は非常に少なく、製品の分布からのみではその製作地を具体的に明らかに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これまでの研究では初期段階に製作された小形仿製鏡（以下、初期小形仿製鏡と記す）の製作地について韓半島東南部と北部九州という二つの論が出されている。小形仿製鏡の製作地が韓半島東南部か北部九州かによっては、生産体制や流通形態、ひいてはその背後に存在する政治的な関係の評価も異なってくる。このため本論では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地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分析方法としては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に視点を置き、特に製品に残存する鋳造痕跡に着目する。

ここで本論の検討対象である初期小形仿製鏡を明確にしておきたい。初期小形仿製鏡とするものは縁が狭縁であり、文様構成が原鏡と考えられる前漢の異体字銘帯鏡に近い一群である（図1）。高倉洋彰分類⁽¹⁾の内行花文日光鏡系・重圈文日光鏡系Ⅰ型a類・Ⅰ型b類、田尻義了分類⁽²⁾の内行花文系第1型・重圈文系第1型、筆者分類⁽³⁾の内行花文系・重圈文系Ⅰ型である⁽⁴⁾。現在、韓半島で19面、日本列島で19面が確認されている（表1）。近年、福岡県久留米市寺徳遺跡において重圈文系Ⅰ型の鋳型が出土し⁽⁵⁾、北部九州で初期小形仿製鏡が製作されていたことがほぼ確実となった。しかし鋳型の出土のみで、そのすべての製作地を北部九州とすることは難しい。韓半島では初期小形仿製鏡の鋳型は現在までのところ出土していないが、製品は韓半島東南部に集中している。

表1 初期小形仿製鏡一覧

No	名称	所在地	型式	面径 (cm)	中子設置方法	湯量不足	備考	文献
1	漁隠洞遺跡 (A-1)	慶尚北道慶州市	重I型B類	5.7	A	○	No. 1～4・12・24と同範鏡	1
2	漁隠洞遺跡 (A-2)		重I型B類	5.7	A	○		1
3	漁隠洞遺跡 (A-3)		重I型B類	5.7	A	○		1
4	漁隠洞遺跡 (A-4)		重I型B類	5.7	A	○		1
5	漁隠洞遺跡 (B-1)		重I型B類	5.5	A	○	No. 5～7・33と同範鏡	1
6	漁隠洞遺跡 (B-2)		重I型B類	5.45	A	○		1
7	漁隠洞遺跡 (B-3)		重I型B類	5.5	A	○		1
8	漁隠洞遺跡 (C)		重I型B類	5.2	A	○		1
9	漁隠洞遺跡 (D)		重I型B類	5.9	A	○		1
10	漁隠洞遺跡 (E)		内I型B類	5.2	A	○		1
11	漁隠洞遺跡 (F)		重I型?	5.0	A	○		1
12	坪里洞遺跡 (1)	慶尚南道大邱市	重I型B類	5.7	A	○	No. 1～4・24と同範鏡	2
13	坪里洞遺跡 (2)		重I型B類	4.5	A	○		2
14	坪里洞遺跡 (3)		重I型B類	5.6	A	○		2
15	坪里洞遺跡 (4)		重I型B類	4.6	A	○		2
16	舍羅里130号墓 (1)	慶尚北道慶州市	重I型A類	4.7	B	○	No. 27と同範鏡	3
17	舍羅里130号墓 (2)		重I型A類	5.0	B	×	No. 18と同範鏡	3
18	舍羅里130号墓 (3)		重I型A類	5.0	B	×	No. 17と同範鏡	3
19	舍羅里130号墓 (4)		重I型A類	4.4	B	×		3
20	有田遺跡177次調査区ST002 甕棺墓	福岡県福岡市	重I型B類	5.1	A	○		4
21	御笠地区遺跡G地区32号住居跡	福岡県筑紫野市	重I型B類	4.4	A	不明		5
22	続命院遺跡	福岡県みやこ市	内I型A類	6.1	B	○	No. 30と同範鏡	6
23	天神遺跡	佐賀県三養基郡	重I型B類	4.55	A	×		7
24	二塚山遺跡46号甕棺墓	佐賀県神埼郡	重I型B類	5.7	A	○	No. 1～4・12と同範鏡	8
25	タカマツノダン遺跡	長崎県対馬市	重I型A類?	5.5	不明	不明	縁から内区のための破片	9
26	方保田東原遺跡110-2番地 17号住居址上層	熊本県山鹿市	重I型A類	4.7	B	×		10
27	小野崎遺跡堀の内I区ビット	熊本県菊池市	重I型A類	4.45	B	×	No. 16と同範鏡	11
28	小野崎遺跡堀の内I区SK-02	熊本県菊池市	重I型A類?	5.3	A?	×		11
29	木瀬遺跡4号住居址	熊本県合志市	重I型A類	4.9	B	×		12
30	五丁中原遺跡4区5号住居跡	熊本県熊本市	内I型A類	6.2	B	×	No. 22と同範鏡	13
31	新御堂遺跡79号住居跡	熊本県上益城郡	重I型B類	5.5～6.0	A	○		14
32	(伝) 菊池・阿蘇郡内	熊本県	重I型A類	5.83	B	不明		15
33	石井入口遺跡82号住居跡	大分県竹田市	重I型B類	5.5	A	○	No. 5～7と同範鏡	16
34	石の迫第2遺跡(生目古墳群 周辺遺跡G区)	宮崎県宮崎市	重I型B類	4.9	A	×	穿孔あり	17
35	横瀬遺跡2号住居跡	鹿児島県指宿市	重I型B類	6.5	不明	不明	縁から内区のための破片	18
36	半田山1号墓第1主体部	兵庫県たつの市	重I型A類	5.3	B	×		19
37	足守川加茂B遺跡堅穴住居89	岡山県岡山市	重I型B類	4.4	A	○		20
38	真亀C地点遺跡3号住居跡	広島県広島市	重I型A類	6.2	B	×		21

本論では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地を明らかにするため、まず初期小形仿製鏡のうち同範鏡を数多く有し、製作地を論じる上で重要と考えられる韓国慶尚北道漁隠洞遺跡および慶尚北道坪里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を中心に検討する。次にその他の初期小形仿製鏡や鋳型の製作技術との比較をおこなう。また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を韓半島で製作された銅鏡や北部九州で製作された小形仿製鏡と比較し、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の系譜を検討する。このような検討をおこなった上で、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地を製作技術の面から明らかにしていきたい。

2. 研究史とその問題点

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地についてはこれまで多くの研究者により論じられてきたが、韓半島東南部と北部九州で意見が一致していない。

小形仿製鏡の製作地について初めて論じたのは梅原末治である。梅原は韓半島で製作が開始されたのち北部九州でも製作がおこなわれるようになったとした⁽⁶⁾。その後、高倉洋彰は小形仿製鏡の分類・編年をおこない、各形式における製品の分布域の変化は製作地の変化をあらわすものとし、初期の製作地を韓半島東南部、後に北部九州で製作が開始されたとした⁽⁷⁾。

高倉の論考後、杉原荘介は小形仿製鏡には日本と韓国に同範鏡が存在するという重要な指摘をおこなった⁽⁸⁾。杉原の指摘により明らかとなった小形仿製鏡の同範関係を具体的に検証したのは小田富士雄である。小田は同範鏡群に残存する範傷の進行や文様の不鮮明さを検討し、同範鏡の鑄造順序を明らかにした⁽⁹⁾。製作地に関しては梅原や高倉が指摘したように韓半島東南部で製作が開始されたという論を支持している。

このように 1990 年代までは小形仿製鏡の製作地は「韓半島東南部から北部九州へ」という図式が一般的であった。しかしその後、高倉は韓半島における銅鏡使用習俗の欠如を指摘し、そのような地域で小形仿製鏡の製作が開始されたことに疑問を呈している⁽¹⁰⁾。高倉の指摘後、田尻義了はこれまでの製作地に関する論考が分布の多寡によりおこなわれてきたという問題点を指摘した。そして小形仿製鏡の湯口の位置が鈕孔の延長線上にあるという製作技術における一貫性を指摘し、小形仿製鏡はすべて北部九州製であるとした⁽¹¹⁾。また柳田康雄は銅鏡の湯口の位置や湯量の検討をおこない、湯口と鈕孔が平行するのは前漢末以降の鑄造技術であり、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は韓半島の多鈕細文鏡の技術とは異な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¹²⁾。これに対し筆者は鑄型に残存する中子を設置するための彫り込み（中子設置施設）の構造と製品に残存する中子設置痕跡に着目し、鈕孔製作技法からみると初期小形仿製鏡の中には韓半島に製作技術の系譜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ものがあることを指摘した⁽¹³⁾。

このように小形仿製鏡の製作地は製品の分布による議論から製作技術を中心とした議論にその中心が移行している。ここで問題となるのは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が一貫しているのか、それとも断絶を認めるのかという点にある。このため本論では漁隱洞遺跡や坪里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と他の小形仿製鏡の鑄造技術の比較をおこなう。また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を韓半島で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銅鏡と比較することで、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地を明らかにしていく。なお漁隱洞遺跡と坪里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の呼称は混乱を避けるため、小田の論文で用いられているもの⁽⁹⁾を使用する。

3. 漁隠洞遺跡・坪里洞遺跡出土鏡の概要

①漁隠洞遺跡

漁隠洞遺跡では銅泡、帯鉤、銅環などの多量の青銅器が一括出土しており、銅鏡は 17 面（これらのうち 2 面は鏡式等不明）出土している⁽¹⁴⁾。出土した銅鏡は前漢鏡の異体字銘帯鏡 2 面、魼龍文鏡 1 面、韓半島製と考えられている放射状文鏡 1 面、小形仿製鏡 11 面である。これらのうち異体字銘帯鏡と魼龍文鏡は前漢後半（紀元前 1 世紀後半）の製作である。小形仿製鏡は内行花文帯を有するもの（以下、内行花文系と記す）が 1 面で、その他はすべて内行花文帯を有さないもの（以下、重圈文系と記す）である（写真 1 の 1～5）。

小形仿製鏡の中には 4 面（A 群）および 3 面（B 群）の同範鏡が含まれている。A 群は坪里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4 面）の中の 1 面（坪里洞 1 鏡）と佐賀県二塚山遺跡 46 号甕棺出土鏡⁽¹⁵⁾（以下、二塚山鏡と記す）と同範鏡であり、B 群は大分県石井入口遺跡 82 号住居跡出土鏡⁽¹⁶⁾（以下、石井入口鏡と記す）と同範鏡である。

②坪里洞遺跡

坪里洞遺跡では青銅利器類、異形青銅器、馬具などの多量の青銅器や鉄器などが出土しており、銅鏡は 6 面出土している⁽¹⁷⁾。銅鏡は前漢鏡の魼龍文鏡 1 面、韓半島製と考えられている放射状文鏡 1 面、小形仿製鏡 4 面である。小形仿製鏡はすべて重圈文系で、上述のように坪里洞 1 鏡は漁隠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 A 群と同範鏡である（写真 1 の 6～8）。

両遺跡からは放射状文鏡と呼ばれる特異な銅鏡が出土している。放射状文鏡は現在までのところ漁隠洞遺跡と坪里洞遺跡に加え、徳島県鳴門市カネガ谷遺跡⁽¹⁸⁾で出土している。カネガ谷遺跡出土鏡は漁隠洞遺跡や坪里洞遺跡出土放射状文鏡と比べると小型で、面径は小形仿製鏡とほぼ同大である。同様な文様構成と推定されるものに熊本県菊池郡和水町諏訪原遺跡出土鏡⁽¹⁹⁾がある。

両遺跡出土の小形仿製鏡は前漢鏡である異体字銘帯鏡を原鏡として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もので、狭縁で蕨手文を主要な文様とすることから、これまでの分類・編年において最も初期のものと位置づけられている⁽²⁰⁾。製作された時期は弥生時代後期初頭前後（紀元前後）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日本列島では同様な小形仿製鏡が北部九州を中心に分布しており、上述のように寺徳遺跡において鋳型も出土している。

4. 漁隠洞遺跡・坪里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の検討

まず漁隠洞遺跡と坪里洞遺跡の製作技術の検討をおこなうが、ここで注目したいのが鈕孔製作における鑄造痕跡である中子設置痕跡⁽²¹⁾である。中子設置痕跡とは中子と中子設置施設との間にできた空間に湯が流れ込み、流れ込んだ湯が固まったためにできた鑄造痕跡である(図2)。中子設置痕跡に視点を置くのは、これが鑄造後に施されるものではないため、製作者集団の系譜や技術的背景を如実に示す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ためである。以下、漁隠洞遺跡と坪里洞遺跡の小形仿製鏡の鑄造痕跡を検討していく。

①漁隠洞A群

漁隠洞A群は坪里洞1鏡・二塚山鏡と同範鏡である。漁隠洞A群の中子設置痕跡は、同範鏡のそれぞれで一定していない(写真2)⁽²²⁾。中子設置痕跡をみると、漁隠洞A-3鏡は三角形状、坪里洞1鏡は「コ」の字状の痕跡がみられ、二塚山鏡は痕跡がみられない。これらのうち漁隠洞A群の中子設置方法を示すのは坪里洞1鏡である。坪里洞1鏡は「コ」の字状の中子設置痕跡のうち、鈕孔の延長線上の部分はほとんど隆起していない。鈕孔は鏡背面の内区よりも上にあり、中子を設置する位置は鏡背面よりも鈕の頂部側に設置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また鈕の形態をみると、湯口側に中子と中子設置施設の間に流れ込んでしまった湯が凝固した痕跡がみられる(写真2の2矢印部分・写真2の4)。このような鈕の形態は特に坪里洞1鏡において明瞭で、鈕孔の径が非常に小さ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この鈕の形態は同範鏡すべてにみられるが、二塚山鏡にはこの痕跡がほとんどみられない(写真2の3)。このような痕跡は中子と中子設置施設の底面の間に空間ができていた場合に残存すると考えられる(図3)。つまり中子設置後に湯口と反対側を圧迫したため湯口側が少し浮き上がってしまったために残存した痕跡であると考えられよう。このように漁隠洞A群は、同範鏡間の各々で中子設置痕跡が異なっており(坪里洞1鏡は中子設置痕跡が場所によって異なる)、中子設置の際に片側の中子が浮き上がる場合があったようである。

②漁隠洞B群

漁隠洞B群は石井入口鏡と同範鏡である。漁隠洞B群の中子設置痕跡をみると(写真3)、漁隠洞B-1鏡は楕円形、B-2鏡は湯の凝固した痕跡と中子の形の窪み、石井入口鏡は楕円形の痕跡が残存している。ここで注目すべきはB-2鏡の痕跡である。B-2鏡には鈕孔の延長線上に湯が固まってできた円形に隆起した部分がある(写真3の2矢印部分)。湯口の反対側には鈕孔から円形に隆起した部分(写真3の2下の矢印部分)に向かって中子設置痕跡が残存しているが、円形の隆起は他の部分よりも突出している。また湯口側にも上述の円形に隆起した部分がみられるが(写真3の2上の矢印部分)、こちら側は隆起した部分以外痕跡は残存していない。B-2鏡の円形の隆起部分は中子設置施設に中子を設置した際に、両者の間に空間ができてしまったためにできた痕跡であると考えられる。そして鈕孔の延長線上にこのような

隆起した痕跡がみられることは、この部分のみに空間が存在し、他の部分にはほとんど空間が存在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わかる。

③漁隠洞C鏡・D鏡

漁隠洞C鏡・D鏡は中子設置痕跡が湯口の反対側のみに残存している。C鏡の鈕孔位置は湯口側も反対側も鏡背面の内区面よりも上にあり、中子設置痕跡はわずかに隆起する部分がある程度である。D鏡は湯口の反対側のみにやや隆起する中子設置痕跡が残存しており、形状は「コ」の字状である。両鏡とも中子設置痕跡がわずかに残存しており、鈕孔の位置や中子設置痕跡の形状から、製作技術上の共通性がみられる。

④漁隠洞E鏡

漁隠洞E鏡も中子設置痕跡が湯口の反対側に残存している。中子設置痕跡はほぼ残存していないが、鈕孔の延長線上のみに隆起している部分が認められる。しかしこの隆起している部分は全体が残存しているのではなく、湯口の反対側の中子設置施設の端部のみが残存している（写真4の1矢印部分）。他の部分には中子設置痕跡は残存していない。このような痕跡は漁隠洞B群にみられたように、中子設置の際に中子と中子設置施設の間にわずかに空間ができた部分があり、その部分に湯が流れ込んでしまったためにできた痕跡であると考えられ、他の部分には湯が流れ込む空間が存在していなかったと思われる。

⑤坪里洞2鏡

坪里洞2鏡は中子設置痕跡が楕円形に残存している。湯口側の鈕孔付近は窪んでいるが、これは鑄びけによるものであろう。湯口の反対側の鈕孔は鏡背面の内区とはほぼ同じ高さであり、中子設置痕跡のみが隆起している。

⑥坪里洞3鏡

坪里洞3鏡は湯口側の鈕孔が鑄びけにより反対側よりも広がっている。鈕孔は鏡背面の内区よりもやや上位にある。中子設置痕跡は半円形で、十字にのびる文様の上に残存している。湯口側の鈕孔には漁隠洞A群にみられたような中子と中子設置施設の底面にできた空間に湯が流れ込んだ痕跡がわずかに残存している（写真4の2矢印部分）。坪里洞3鏡の中子設置の際も、図3で示したように、中子の片方が圧迫されたと考えられる。

⑦坪里洞4鏡

坪里洞4鏡は中子設置痕跡が残存しておらず、鈕孔は内区面よりも上位にある。鈕は半球形ではなく断面円形の棒状になっている。

漁隠洞遺跡と坪里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の鈕孔製作技法の特徴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になる。

- ・同範鏡の各々で中子設置痕跡が異なる。
- ・中子設置の際に、空間ができる部分とできない部分が存在したため、中子設置痕跡が残存する部分と残存しない部分がみられる。
- ・湯口と反対側の鈕孔が鏡背面の内区よりも下にくるものではなく、すべて鏡背面の内区と同じ高さか、上位に位置する。

5. 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

ここで漁隠洞遺跡と坪里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の鑄造痕跡を他の初期小形仿製鏡と比較してみよう。

まず初期小形仿製鏡の鑄型の中子設置施設であるが、寺徳遺跡出土鑄型は中子設置施設のみが彫り込まれており、ここに中子をそのまま設置して鑄造されたと考えられる⁽¹³⁾。このような方法で鑄造がおこなわれた場合、中子が中子設置施設と同形同大であれば製品に中子設置痕跡は残存しないこととなる。つまり中子と中子設置施設の間に空間ができなければ中子設置痕跡は残存しないのである。一方、中子と中子設置施設の間に空間ができてしまった場合はそこに湯が流れ込み、中子設置痕跡が残存することとなる。このように鑄型に残存する中子設置施設からのみでは中子設置後の状態を復元することは難しい。つまり鑄型に彫り込まれた中子設置施設の形状のみからでは北部九州における小形仿製鏡製作技術を復元するのは困難なのである。では次に、同範鏡の中子設置痕跡の比較をおこなう。これまで初期小形仿製鏡のうち同範鏡は5組確認されている⁽²³⁾。漁隠洞A群・B群の中子設置痕跡は同範鏡の各々で異なっており、漁隠洞B-2鏡のように中子設置痕跡が一部のみ突出するものがみられる。一方、他の同範鏡の中子設置痕跡をみると、残存具合は異なるものの、形状や大きさはほぼ同じである。韓国慶尚北道舎羅里遺跡130号墓⁽²⁴⁾（写真5の1）と熊本県小野崎遺跡堀の内I区ピット⁽²⁵⁾（写真5の2）出土鏡（綾杉文を主文とするもの）は同範鏡と考えられるが、これらの中子設置痕跡は同形同大であり、舎羅里遺跡130号墓出土鏡のうち2面の同範鏡（S字文を主文とするもの）も中子設置痕跡の形状や大きさに差異はない。また中子設置痕跡が一部のみ残存しているものや、まったく残存していないものはない。

このように初期小形仿製鏡の中子設置痕跡は二分することができ、このことは中子の設置方法が異なっ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漁隠洞A群や坪里洞3鏡のように中子が圧迫されて動いてしまっている状況や、漁隠洞B-2鏡や漁隠洞E鏡のように中子設置痕跡の一部だけが突出し

ていることから、これらの製作においては中子設置後にできた空間を充填することによって中子を固定し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充填が不十分で鈕孔の延長線上などに空間ができてしまった場合に、漁隠洞B-2鏡や漁隠洞E鏡のような痕跡が残存してしまったのであろう。この場合、空間が充填された部位は中子設置痕跡が残存しないため、中子設置痕跡は一部しか残存しないこととなる。一方、舍羅里鏡などにみられる中子設置痕跡はすべての部分が同様に残存しており、同範鏡間に差異もなく、空間を充填した痕跡はみられない。

つまり初期小形仿製鏡の中子設置方法は、中子を設置した後にできた空間を充填するもの（A類）と中子を設置するのみのもの（B類）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図4）。A類の場合は、同範鏡の中子設置痕跡が各々で異なることから、鑄造の際の充填の仕方は毎回異なっていたようである。B類の場合は充填をおこなわないため同範鏡の中子設置痕跡は同形同大となっている。

これらの同範鏡以外の中子設置痕跡をみると、A類によって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るものは漁隠洞遺跡と坪里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を除くと非常に少ない。A類は漁隠洞遺跡・坪里洞遺跡出土鏡や有田遺跡ST002 甕棺出土鏡⁽²⁶⁾（図1の4、以下有田鏡と記す）、御笠地区遺跡G地区 32号住居跡出土鏡⁽²⁷⁾など蕨手文を主要な文様としている鏡群にみられる。これに対し、B類により製作されたものは舍羅里遺跡130号墓出土鏡、真亀C遺跡出土鏡⁽²⁸⁾や五丁中原遺跡出土鏡⁽²⁹⁾（図1の3）などの北部九州で鑄型が出土している型式のものや前漢の異体字銘帯鏡文様を忠実に模倣している一群にみられる。

このように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は決して一貫しておらず、漁隠洞遺跡や坪里洞遺跡出土鏡と同様な製作技術によって製作された一群（A類）と、これらとは異なる方法によって製作された一群（B類）があることがわかる。またこのような技術的差異は模倣した文様の違いにも通じており、蕨手文を主要な文様とする一群と前漢鏡を忠実に模倣した一群の製作技術の系譜は一樣ではなかったようである。

6. 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の系譜

上述のように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は中子設置方法の検討から二分することができる。では、それぞれの製作技術を北部九州および韓半島で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る銅鏡と比較してみよう。

（1）北部九州における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

初期小形仿製鏡に続いて製作された小形仿製鏡は狭縁で、内行花文帯が縁の内側に配されるものである（内行花文系Ⅱ型A類）。内行花文系Ⅱ型A類の鑄型で鈕および中子設置施設が残存

しているものは現在のところ出土していない。そのため福岡県春日市須玖遺跡群などの北部九州で鋳型が出土し、製品の分布も北部九州に集中していることから、北部九州での製作と考えられる内行花文系Ⅱ型B類の製作技術をみてみよう。

内行花文系Ⅱ型B類は中子設置痕跡が残存しているものが非常に多い（写真6の1・2）。中子設置痕跡をみると、湯口側は鋳びけによって残存していないが、湯口の反対側はそのほとんどにおいて中子設置痕跡が残存している。しかも中子設置痕跡は一部が残存するものではなく、中子と中子設置施設の間にできた空間の形の中子設置痕跡が残存している。またこのような中子設置痕跡は内行花文系Ⅱ型B類と同時期に北部九州で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る内行花文系Ⅳ型や重圈文系Ⅱ型にも同様にみられる（写真6の3）。内行花文系Ⅱ型A類もⅡ型B類と同様な中子設置痕跡がみられることから、両者の製作技術は連続していたものと思われる。つまり北部九州で製作された小形仿製鏡は中子を設置した後に充填をすることなく鋳造されること（B類）が一般的であったと考えられ、これは初期小形仿製鏡のうち、北部九州で鋳型が出土している型式や前漢鏡の忠実な模倣をおこなっている一群と同様の製作技法である。

（2）韓半島における銅鏡の製作技術

初期小形仿製鏡が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る時期（弥生時代中期末から後期初頭）に韓半島で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る銅鏡として放射状文鏡がある。放射状文鏡は上述のように漁隱洞遺跡・坪里洞遺跡・カネガ谷遺跡で出土している。面径は漁隱洞遺跡と坪里洞遺跡出土放射状文鏡が14.9 cm、カネガ谷遺跡出土放射状文鏡が6.1 cmである。面径からいうとカネガ谷鏡は初期小形仿製鏡とほぼ同大であり、韓半島においても小型の銅鏡が製作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

放射状文鏡は特殊な文様構成であり、漁隱洞遺跡出土鏡は平縁－内行花文帯－文様帯－円圈－文様帯－円圈－鈕で、坪里洞遺跡出土鏡は鈕と円圈の間に珠文が配される。漁隱洞遺跡および坪里洞遺跡出土放射状文鏡の中子設置痕跡をみると、湯口側・湯口の反対側の両方において残存していない（写真7左）。しかし両鏡の鈕孔付近の平坦面（中子が設置された部分）に凹凸がみられる。これは中子設置施設に中子を置いた後にこの部分を充填した際に、充填した部分の表面に凹凸がみられたためにできた痕跡であると考えられる⁽³⁰⁾。湯口の位置は、漁隱洞遺跡出土鏡において鈕孔の延長線上の縁がやや丸みを帯びていることから、鈕孔の延長線上にあったことがわかる。また両鏡とも鈕が鋳びけによって変形してしまっており、特に漁隱洞遺跡出土鏡は湯口の反対側の鈕孔（写真7右下）は長方形であるが、湯口側の鈕孔（写真7右上）は長方形であったものが鋳びけによりいびつな形に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に韓半島で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る放射状文鏡の製作技術をみると、中子設置施設に中子を設置した後に中子設置施設と中子の間にできた空間を充填するという技法（A類）が用いられており、この技法は漁隱洞遺跡や坪里洞遺跡出土鏡と共通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また鈕や鈕孔の形状が鋳びけにより変形するという技術的に稚拙な点も看取される。

7. 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地

以上みてきたように、初期小形仿製鏡は製作技術から漁隠洞遺跡や坪里洞遺跡出土鏡などの一群（A類）と、舎羅里遺跡 130 号墓や五丁中原遺跡などの一群（B類）にわけ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前者は韓半島の銅鏡製作技術と共通の技術が用いられており、後者は北部九州の小形仿製鏡製作技術と同様な技術が用い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このように初期小形仿製鏡の中子設置痕跡の検討から、小形仿製鏡の製作技術は一貫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

また、このような技術的差異は湯量の点からも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漁隠洞 A 群は鈕孔の延長線上にあたる部分の縁がかなり薄くなっており、縁の幅も他の部分に比べ広がっている（写真 8 の 1）。この現象は同範鏡のすべてにほぼ同様にみられる。これは柳田が有田鏡を例に指摘したように⁽³¹⁾、注湯の際の湯量不足に起因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漁隠洞 A 群にみられるような湯量不足に起因すると考えられる縁の変形は漁隠洞 B 群や漁隠洞 E 鏡、坪里洞 2 鏡、坪里洞 4 鏡（写真 8 の 2）にもみられる現象である。他の漁隠洞遺跡および坪里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においても上述のような顕著な痕跡ではないが、いずれも湯口部分の縁が薄くなっている。このように漁隠洞遺跡・坪里洞遺跡出土小形仿製鏡のほとんどにおいて湯口部分に縁の窪みがみられることから、これらの製作においては湯量不足が頻繁に起こ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想定される。一方、北部九州の製作技術と共通性がみられた一群はこのような湯量不足がほとんどみられない⁽³²⁾。つまり漁隠洞遺跡や坪里洞遺跡のような韓半島の製作技術に系譜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一群は湯量不足が頻繁に起こっており、北部九州と同様な製作技術が用いられている一群は湯量不足がほとんど起こ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に製作技術の検討から、漁隠洞遺跡や坪里洞遺跡出土鏡などの一群を韓半島での製作、舎羅里遺跡 130 号墓や五丁中原遺跡などの一群を北部九州での製作と考えてよ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田尻や柳田が言うように湯口の位置に製作技術上の系譜を見出すならば、韓半島製と考えられる放射状文鏡の湯口の位置が鈕孔の延長線上にあることから、むしろ小形仿製鏡の湯口の位置は韓半島における製作技術と共通性をもっているといえよう。小形仿製鏡が製作された時期においては韓半島での青銅器製作は依然継続しており、放射状文鏡や多鈕無文鏡⁽³³⁾といった銅鏡の製作も少数ながらおこなわ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また小形仿製鏡は鑄上がりが悪く、韓半島におけるそれまでの青銅器製作技術と乖離しているという意見もあろうが、土製範を使用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多鈕細文鏡はその分布が韓半島の西側に偏在しており、時的にも小形仿製鏡とは直接的に継続しない。一方、前漢鏡や小形仿製鏡の分布の中心は韓半島東南部にあり、それまでの青銅器の製作地とは異なっていたと考えられ、そこには技術的差異が存在したのと考えられる。前漢鏡が韓半島東南部に集中することも、この地での小形仿製鏡生産がおこなわれていた可能性を高くする。また馬鐸や小銅鐸にも小形仿製鏡と同様な技

術的な稚拙さ（鑄びけなどの鑄造不良）がみられることから、韓半島における小形仿製鏡生産がおこなわれていた可能性は高いと思われる。

今回の検討は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地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ため、その後の製作技術の変遷や生産体制については言及していない。また小形仿製鏡の生産は北部九州のみではなく近畿地方などでもおこなわれており⁽³⁴⁾、北部九州の小形仿製鏡製作者集団との関係も今後の問題となろう。このような問題に対し、今後は製作技術の面からの検討をおこない、弥生時代における銅鏡生産の実態を明らかにしていきたい。

本稿を草するにあたり、国立慶州博物館や国立大邱博物館をはじめとする諸機関においては、本論の検討対象とした初期小形仿製鏡の調査を快くおこなわせていただき、資料の実見の際には様々なご配慮をいただきました。また国立慶州博物館、国立大邱博物館、佐賀県立博物館、佐賀県教育委員会、竹田市教育委員会の諸機関には写真の掲載を許可していただきました。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以下の諸氏、諸機関には資料調査や研究会の際に多くのご助言、ご指導を賜りました。記して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敬称略、五十音順、韓国はカナタ順）。

（日本）

網田龍生、家田淳一、岡本一秀、奥村俊久、小畑弘己、城戸誠、木下尚子、金姓旭、木村達美、清田純一、隈昭志、蔵富士寛、甲元眞之、三枝健二、柴田英樹、杉井健、園井正隆、高見淳、瀧本正志、竹中克繁、田尻義了、常松幹雄、藤丸詔八郎、村上久和、柳田康雄、山口健剛
大分県立歴史博物館、岡山県古代吉備文化財センター、菊池市教育委員会、熊本市教育委員会、久留米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佐賀県立博物館、佐賀県教育委員会、城南町歴史民俗資料館、竹田市教育委員会、筑紫野市歴史博物館、兵庫県教育委員会、広島県立歴史民俗博物館、福岡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みやこ町歴史民俗博物館、宮崎市教育委員会、山鹿市博物館、山鹿市出土文化財管理センター

（韓国）

松村洋介、오세은、이양수、최성애、장용준、박경도、박민지、박천수、平郡達哉
国立慶州博物館、国立大邱博物館

註

(1) 高倉洋彰 1972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について」 『考古学雑誌』 第58巻第3号 日本考古学会

高倉洋彰 1985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について（承前）」 『考古学雑誌』 第70巻第3号 日本考古学会

(2) 田尻義了 2003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製作地—初期小形仿製鏡の検討—」 『青丘学術論集』 22集

財団法人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田尻義了 2004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生産体制論」 『日本考古学』 第18号
日本考古学会

(3) 南健太郎 2007 「弥生時代九州における漢鏡の流入と小形仿製鏡の生産」 『熊本大学社 会文化研究』 5

熊本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

- (4) 本稿で用いる小形仿製鏡の型式は筆者分類による。初期小形仿製鏡の製作時期は弥生時代中期末～後期初頭と考えている。前掲註3参照。
- (5) 江島伸彦 1999 「福岡県田主丸町益生田寺徳遺跡出土の鑄型について」 『九州考古学』 第74号 九州考古学会
- (6) 梅原末治 1959 「上古初期の仿製鏡」 『国史論集』(一) 読史会
- (7) 前掲註1
高倉洋彰 1993 「弥生時代仿製鏡の製作地」 『季刊考古学』 第43号 雄山閣
- (8) 杉原莊介 1978 「日・韓出土の同鑄型による小銅鏡」 『日本考古学協会昭和53年度大会 研究発表要旨』 日本考古学協会
- (9) 小田富士雄 1982 「日・韓地域出土の同範小銅鏡」 『古文化談叢』 第9集 九州古文化研究会
- (10) 高倉洋彰 2002 「弁韓・辰韓の銅鏡」 『韓半島考古学論叢』 すずさわ書店
- (11) 前掲註2 (2003)
- (12) 柳田康雄 2005 「銅鏡鑄造における湯口について」 『鏡範研究』Ⅲ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二上古代鑄金研究会
- (13) 南健太郎 2005 「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鈕および鈕孔製作技術—その技術と系譜に関する予察—」 『鏡範研究』Ⅲ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二上古代鑄金研究会
- (14) 梅原末治・藤田亮策編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養徳社
- (15) 石隈喜佐雄・七田忠昭編 1979 『二塚山』 佐賀県文化財調査報告書第46集 佐賀県教育委員会
- (16) 後藤幹彦編 1992 『菅生台地と周辺の遺跡XV』 竹田市教育委員会
- (17) 尹容鎮 1981 「韓国青銅器文化研究—大邱坪里洞出土—一括遺物検討—」 『勸告考古学報』 10・11 韓国考古学研究会
- (18) 原芳伸編 2005 『四国横断自動車道建設に伴う埋蔵文化財発掘調査報告』 徳島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 調査報告書第62集 徳島県教育委員会・徳島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日本道路公団
- (19) 甲元眞之他 1983 「Ⅱ 弥生時代」 『肥後考古』 第3号 肥後考古学会
- (20) 前掲註1・2・3
- (21) 前掲註13 P.17-21
- (22) 写真2～写真7は、上か湯口の位置する方向である。
- (23) 前掲註3、表1参照
- (24) 河眞鎬・金美淑編
2001 『慶州舎羅里遺跡Ⅱ—木棺墓、住居址—』 嶺南文化財研究院学術 調査報告書第32冊 嶺南文化財研究院
- (25) 高見淳編 2006 『小野崎遺跡』 菊池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1集 菊池市教育委員会
- (26) 榎本義嗣編 1997 『有田・小田部28』 福岡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第513集 福岡市教育委員会
- (27) 奥村俊久編 1986 『御笠地区遺跡』 筑紫野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15集 筑紫野市教育委員会
- (28) 中田昭編 1977 「真亀C地点遺跡」 『高陽新住宅市街地開発事業地内埋蔵文化財発掘調査 報告』 広島県教育委員会
- (29) 金田一精編 1997 『五丁中原遺跡』 五丁中原遺跡群第1次調査区発掘調査概要報告書 熊本市教育委員会

- (30) 鈕孔付近の凹凸は中子を真土等で作り表面に凹凸があった場合も残存する可能性があり、充填の際にできたものではない可能性もある。しかし中子設置痕跡が鈕孔付近にわずかに残存していることから、中子を設置した際には空間が残存しており、鈕孔に近い部分以外は充填された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る。
- (31) 前掲註 12 P.37 - 42
- (32) 福岡県京都郡みやこ町続命院遺跡出土鏡は湯口の反対側に縁の窪みがみられるが、同範鏡である五丁中原遺跡出土鏡にはこの窪みはみられない。湯量不足に起因する縁の窪みは湯口側の縁にみられることから、続命院遺跡出土鏡の縁の窪みは湯量不足に起因す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なお、続命院遺跡出土鏡の詳細は以下の文献を参考にされたい。
- 柳田康雄 1997 「3 銅鏡」 『徳永川ノ上遺跡Ⅲ』一般国道 10 号線椎田道路関係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第 9 集 福岡県教育委員会
- (33) 韓国慶尚北道朝陽洞遺跡 5 号木棺墓では多鈕無文鏡が出土している。この木棺墓は共伴遺物や墓の形態から、前漢鏡 4 面が出土した朝陽洞遺跡 38 号木棺墓と同時期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多鈕無文鏡は小形で (5.3 cm) 、中子設置痕跡は残存していない。このため多鈕無文鏡も A 類によって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る。朝陽洞遺跡出土鏡については以下の文献を参考にされたい。
- 최성애他編 2003 『慶州朝陽洞遺蹟Ⅱ』国立慶州博物館學術調査報告第 13 冊 国立慶州博物館
- (34) 田尻義了 2005 「近畿における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生産」 『東アジアと日本—交流と変容』第 2 号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研究院

<表 1 参考文献>

- 1 : 前掲註 9 - 14
- 2 : 前掲註 17
- 3 : 前掲註 24
- 4 : 前掲註 26
- 5 : 前掲註 27
- 6 : 前掲註 32
- 7 : 前掲註 9
- 8 : 前掲註 15
- 9 : 対馬遺跡調査会 1963 「長崎県対馬調査報告 (一)」 『考古学雑誌』第 49 巻第 1 号 日本考古学会
- 10 : 山口健剛編 2005 『方保田東原遺跡(6)』山鹿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 18 集 山鹿市教育委員会
- 11 : 前掲註 25
- 12 : 佐藤伸二 1983 「11 S 字文鏡」 『肥後考古』第 3 号 肥後考古学会
- 13 : 前掲註 29
- 14 : 清田純一編 2003 『宮地遺跡群』城南町文化財調査報告書第 13 集 城南町教育委員会
- 15 : 野田拓治 1983 「12 重圈文鏡」 『肥後考古』第 3 号 肥後考古学会

16：前掲註16

17：中山豪・久富なをみ編 1996『史跡生目古墳群周辺遺跡発掘調査報告書』宮崎市教育委員会

18：弥栄久志編 1982『横瀬遺跡』指宿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6 指宿市教育委員会

19：渡辺昇 1987『半田山古墳群』『兵庫県埋蔵文化財調査年報』昭和59年度 兵庫県教育委員会

20：島崎東・光永真一編 1995『足守川河川改修工事に伴う発掘調査 足守川B遺跡』岡山県埋蔵文化財発掘調査報告94 岡山県教育委員会

21：前掲註28

<図版出典>

図1-1：岡崎敬 1977『鏡とその年代』『立岩遺蹟』立岩遺蹟調査委員会

図1-2：前掲註33

図1-3：前掲註29

図1-4：前掲註26

上記以外は筆者作成。写真1～8は筆者が撮影し、以下の各所蔵機関の許可を得て掲載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写真1-1～5、写真2-1、写真3-1・2、写真4-1、写真5-1、写真7：国立慶州博物館

写真1-6～8、写真2-2・4、写真4-2、写真8-2：国立大邱博物館

写真2-3、写真8-1：佐賀県立博物館

写真3-3：竹田市教育委員会

写真5-2、写真6-1：菊池市教育委員会

写真6-2・3：佐賀県教育委員会